지금까지 미국 주식시장이 가장 오랜 기간 오른 건 1990년대 10년간이다. 그리고 이번이 두번째다. 1990년대 상승은 아이티 버블 붕괴로 마무리됐다. 아직 상승기간과 상승률이 90년대 말에 미치지는 못한다. 나스닥 주가를 평가하는 주가순이익배율(PER)도 그 때 60배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.

‘궁서’ 에서 ‘맑은고딕’ 으로 폰트가 바뀌어야 테스트 통과!